

* 팀NO : 2019- 019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외양하 (3 팀) 공한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바레인

3. 사역기간 : 2019년 8월 10일(목) ~ 8월 17일(목) / (1)박(8)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147

[Signature]

이성하 4/2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선교	김세웅	Kim Se-ung	1	93-14					
2	총무	선교	송유창	Dong yuchang	6	2082-039					
3	서기	선교	석사무안	suk samuel	8	1980					
4	회계	선교	박태선	Park Taeseon	8	82-52					
5	의료	선교	민병욱	Min byung-uk	8	82-328					
6	선교	선교	심향옥	Shim hyang-ok	1	2017-008					
7		선교	김강숙	Kim jang-suk	8	794					
8		선교	남은희	Nam Eun-hee	8	4998					
9		선교	임태주	Lim Teo-ju	1	96-20					
10		선교	김강순	Kim jang-sun	2	2016-0095					
11		선교	김귀은	Kim gu-eun	8	2005-457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4/2
황수안4/2
정재영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for 스리랑카

예수님이 진짜다. 오직 예수그리스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심고자 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언어는 이게 다다. 언어의 제약이 때로는 어렵고, 한계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은 뜨거운 감동과 눈물을 허락하셨다.

사역지 바우니아에는 병든 자가 무척 많았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져내린 표정과 선교 팀원에게 원가라도 연기를 바라는 간절한 표정 앞에,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며,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병자임을 깨닫게 하셨다. 눈으로 보이는 병이 다가 아님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 최악으로 톨톨 뭉쳐서, 꿈쩍도 안하는 그 완악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음을,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보게 하셨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잠시라도 스리랑카의 병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역 둘째날은 현지교회에서 침례식(세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물속에 온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식은 그야말로 은혜로 충만한 순간이었다. 다시 태어나는 날. 이제는 내가 사는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서약하고 행하는 첫날을 위해 영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침례를 마치고,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온 이들은,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순결하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침례식은 바다에서 진행하였는데, 때맞춰 내린 비와 격렬해진 파도는 은혜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지켜보는 선교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을때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였다. 높은 파도와 비로인해, 침례식 진행이 어의치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도움을 주었다. 천국으로 갈 때까지 주의 성도들이 서로의 손을 놓치 않으며, 협력의 모습으로 늘 성기기를 기도한다.

스리랑카는 17년 기준, 세례보건기구(WHO)의 통계를 근거로, 자살률이 1위이다. 약물중독과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많다고 한다. 그 밑바닥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삶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면 해결된다. 절망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살 수 있다. 라고 들었다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영혼들이 진정한 빛이자 희망인 예수님을 보도록, 자살은 죄악 그 자체임을 반드시 깨닫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역은 크게 오전사역, 오후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후에는 현지교회에 방문해서 주로 어린이사역을 진행하였다.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중에는 복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도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연 중에 거부감을 표하는 사람 등. 제각각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영혼이 목마르고 굶주린 것은 같았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처럼(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 9:36-37-) 영혼을 향한 발걸음과 기도가 날로 날로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현지에서 40년 넘게 선교중이신 JY선교사님은 “지금은 이 지역이 추수할 때이다” 라고 하셨다. 현지로 직접 가는 것 뿐 아니라,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기도로 선교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함을 느낀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 천국에서 영혼들을 만나면, 서로가 기도로써 중보하였음을 알 것이다. 서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스리랑카 바우니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사명에 온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 현지교회의 목회자님, 현지 교회의 사역자 등 많은 분들이 사역 중에 계시다. 한국에 있다가 현지에 도착하니, 더운 날씨는 물론이고,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다. 물자의 부족함이 있고, 교통, 의료 등의 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은 그저 먼지와 같은 작은 티끌에 불과할 것이다. 도리어 감사로 받으시리라 믿는다. 제일 중요한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이 그 무엇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 남겨진 우리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통해 만나는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감히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셨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현지사역자님, 단기선교사분들, 서론명이 넘는 주의 종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복음전파를 위해 땀흘리고 아낌없이 쏟아부은 순간 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멋졌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에게. 아멘!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스리랑카 3팀 김정순

2019년 1월 27일 예배 전 광고 시간에 ‘주간 총현 4면 2019년 선교 사역방향’을 안내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자 나는 곧바로 선교 위원회로 가서 스리랑카 3팀에 신청을 하였다.

팀이 구성되자 “견고한 선교베이스를 구축하라”는 명제 아래 CMTC 참가를 시작으로 생전 처음 만나는 분들과 곧 바로 팀 훈련과 권역별기도회 그리고 이어지는 언어훈련, 프로그램 구성과 준비, 외국인 밀집지역 현장실습, 기도원 영성훈련, 심사, 릴레이금식, 팀 합심기도와 파송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참여하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느끼지 못 하는 사이 영육 간에 무리 없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스리랑카 바우니아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서는 나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80세의 나이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김제용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놀라웠다. 69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으로 15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어려움에 처하신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기도로 회복하시어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 분이다. 고산 지대를 비롯한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 ~~30년 가까이~~^{35년}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례를 베푸시고 목회자의 성장과 교사 양성에 힘쓰시며 필요한 곳에는 우물을 만들어 주시고 현지인들의 생활을 여러모로 돕고 계시는 분이다. 선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무라고 강조하시며 복음은 현장마다 문화가 다르므로 그 곳에서 현지인과 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적응하면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분께서 하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리랑카 교구장 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 속 깊이 남아있다.

오전의 축호 전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 힌두교인이거나 무슬림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만났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매 순간 부족하고 미약함이 드러나도 개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강 같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내 안에 감추어진 자신도 알 수 없었던 담대함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지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에 이루어진 어린이 사역은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사역이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율동, 천지창조, 복음 팔찌 만들기, 왕자와 공주의 왕관과 화관 만들기, 탕자 이야기 인형극, 예수님 이야기 영상 등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팔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알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스리랑카의 영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길 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미약한 우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스리랑카 땅에도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벽에 가진 경건회에서 우리는 강성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 힘내어 일할 수 있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너희는 발을 떼기만 하라. 그 곳에 있기만 하라. 묵묵히 하기만 하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라.”

선교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보살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라고 늘 말씀 하시며 굳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김세종 팀장님, 말씀으로 무장하신 팀의 기둥 되어 주신 전도사님, 기도의 용사이신 귀하신 권사님들, 풍성한 귀한 달란트를 지니신 집사님, 건강한 심령과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받으신 두 형제님을 저와 함께 묶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하여 감사드린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나는 외친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라고.

선교 소감문

스리랑카 3팀 석사무엘

부활절 테러로 인해 국가 위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귀가 막혀 듣지 못하시던 분이 기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겪으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를 하면서 미리 예비해주신 일꾼들을 통하여 선교가 마구잡이가 아닌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은 내전, 테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사랑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들과 소통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스리랑카의 현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 장비(인화기, 블루투스 스피커, 노트북, 스마트폰-번역기)을 활용하여 선교를 진행하면서 전자 장비들을 더욱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선교팀들이 준비함에 있어 전자장비의 활용을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선교 소감문

신향옥 집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드립니다.

유복한 제가 영혼을 살리는 선교대열에 동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선교에 가고 싶었으나 직장 핑계로 가지 못했는데...

이번 단기 선교는 총회교회 등락하고 처음 가게 되어 좋았습니다.

팀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분야에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부당)

소리랑카!

저어 어느 지구촌에 있는나... 나와는 먼 ~나라라고 느껴는데

더 솔직히 말한다면 피루색이 너무 달아서 더 먼나라였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 다녀와서 피루색은 나에게 베푼 개버렸다.

특히 어렸어이 눈앞으로. 어른들의 순수성. 열악한 환경에도 평온한 모습.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다종교속에서 정통하신 하나님은 안지 못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안습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나는 한사람이라도 꼭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저를 위해

죄인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기위해 십자가까지 달리 주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 준비하여 주게될 준비가 감사했다.

이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 → 이 뜻이 나에게 더 힘을 주었다.

나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총회교회)로 왔다.

들었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정말 지구촌은 모두가 우리의 교구 (지금은 목장)이다.

하나 사랑의 바른 신앙이 내 가정은 살리고 내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믿는

이번 선교지에서도 나는 어김없이 지금 나에게 감사가 너무 부족함을 느꼈고

기도와 헌신으로 더 충실하자 라는 더 깨달았다.

나 자신의 선교를 다녀온것보다 선교를 받고 왔음.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교단과 (前)전교회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모르셨으면, 가지각 의계 보고는

관에서도 꼭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물론 전사님들 청년모듬가 인사천리로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많은 사랑을 흘렸다 소리랑카에서는 반하는법이 더 많고 아름다웠다 야사스처럼

모든 모든 분에게 감사와 배수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모든 일을 준비하시어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

다음 선교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 준비 하였습니다. →

감사 드림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목사님 사모님(신현애) 사모님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여전히 사역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셔서 화려한 화랑이 어린이들에게 스리랑카의
기쁨이 증산하였습니다.

바쁜 일가목에서도 선교 도우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 ~

먼 훗날 장미선교사로 꿈을 꾸어 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참고 드립니다.

스리랑카 (타밀어.영어) 찬양 2곡씩. 출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선교팀 저에게 연락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오. 2103. 4954)

신 향목 집사.

소감문

음태극 전도사

이번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영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느라 주님 종들을
보내어 영생 원망자 덕함 받은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족한 종들은 스리랑카 와우니아 지역에 우원 받은자들을 위해
족수관으로 붙여주시고 보내어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타 가문속에 있던 한국땅에 130년전기 성도들은 보내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로 선교할수 있는 나라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민족을 통해서 세계선교의 땅의 장을 계획하시고 진행 하심속에
충현교회에 단기선교사들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속에 참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와우니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 스리랑카 3팀을 보내어 주셔서 성도의 양떼 돌기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매순간 보고 감격하면서 순종하여 기쁘게 사역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미와 감탄속에서 기쁘게 주님께 쓰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한인 연합교회에서 30-40년전 사역하셨던
노년의 최영창장로 내외를 만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한인 연합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최영창장로를 보내어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은퇴하신 후에 다시 스리랑카 선교사로 헌신한 80세 고령의
김제용선교사의 헌신과 저력들을 위해 이번 사역이 통역과 안내를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보냄을 받은 와우니아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성경의
역사 하심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보면서 환희와 감격속에
하나님을 한껏으로 순종하는 리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여 저들을 사랑

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쪽은 스리랑카 칼밀어로 각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때 그들이 이방인이 아닌 부름 형제와 같은 친밀한 마음
으로 여하고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속에서 찬양과 찬송
을 하고 복음전도사로 저들로 있게 하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하나되어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헤어짐을
아쉬워 하며 그 교회의 사역자의 통역으로 2주 여권이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원망하였습니다 특히 가랑에서 한자를 만나 기도를
부탁 받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길 아멘으로 응답
하느것이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2주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원이 사역과 세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희속에 기원생명의 근기 기뻐하는 모습에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캄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때
무선한 성령의 임재속에 한바탕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헌신의 모습이 하나같이 우리들을 추수꾼으로 저들에게 사용되어
저 있느것이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천지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재삼 인식하고 통역
하시는 교회의 기성종교사의 모습의 전리항과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위한 열심으로 또 환복 반복하면서 통역하여 주었습니다
캄원들의 찬양과 찬송속에서 인형극 편축은 보면서 복음팔찌
만들기 송복기 기여주기라 왕관과 화환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가 된 모습이 찬희속에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칠례를 받고 핸드메이크로 갈아입고 세례식에 참석
하고 비오는중에 해변가에서 파도속에서 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됨을 감사
하고 면막한 중에도 감사 찬양도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 합니다. 특히 캄원중에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화환은 싸우고 선물로 주고
위로하였습니다. 저희 스리랑카 3당의 선교사들이 스리랑카 선교사들과 사역자
들의 사역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사역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모든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스리랑카 사역자와 교회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8월 23일 임태국 전도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를 많이 다녀왔지만 이번 소리장사에 도착 했을때
나의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온 나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전도 전도서를 인우고 그들에게 읽어주고 읽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 나의 마음에 작은 인원이
생겼다. 그들의 삶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마음이 나이에 유익하게 시작했다.

그것도 사랑이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두 손 모아 간절히 아버지께 빌었다.

함께 사역중에 노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중에 큰 질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선교사님의 사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번 저의 힘에도 두분. 처음 선교에 동창하셨다.

여전히 사역으로 전도장을 뜨고 그들을 많이 섬겼는데

얼마나 은혜가 풍만한지 성령하나님께서 주신대로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여권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길 기도 하면서 모든 사역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노리장자 기원

82-120

학 재 사

팔레리아 : 감사합니다

노리장자를 향하여 편지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여호와 하나님 비전 가운데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는 우리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사도들을 하사하여
다시 한번 기원을 다하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고 기쁘게.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사역하시는 성령사도들을 하사하여

또 하사하여 여러 번 가운데 사역하시는 노리장자 목사님
을 생각하여 이 땅위에 사역하시니 어떻게 고맙습니다
되도록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역소감문

이름 : 김정숙

개년 선교를 통해 주님을 만민에게 전할 기회를 주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스리랑카 (아름다운 땅) 에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복음 사명의 터전 위로 인도 하셔서, 현지 목사님과 성도들과 복음의 생명을 해 묶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주기도문과 라틴어 전도지를 전해 주셨는데, 열악한 ^{장소} 예배와 믿음 성장의 외부 조건은 열악하지만 주님은 스리랑카 사남들에게 지극한 들는 자 이지만, 잘 자라서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

참례 세례식이 교회와 바나에서 거행 되었는데 세례 교인들의 진지함 기쁨의 모습은 참예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 체험을 갖게 하였다.

북부와의 주변 (타밀어 사용 지역)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때때로 리생당한 남부 지역은 아픔과 뒤늦게 여전 한데, 주께서는 비상 상태인 스리랑카 땅을 중환히 여기셔서 회복의 시간이 머시 속히 오길 간절히 간구한다.

우리 단기 선교는 일주일 짧은 시간 이었지만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말씀 선포로 복음의 씨앗 심으셨으니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다.

열악한 지체 (육체적)인 우리 몸을 사용 하셔서 건강하게, 감당케 하시고,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지평을 넓히게 하신 주님 감사 합니다.

선교 소감문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에 택한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땅 에 우리팀을 보내주셨다
우리팀은 여러교구와 부서에서 모인 연합팀이었다
교구단일팀으로만 선교를 다녀왔던 경험으로 혹 어울림에 어색함이 있을까 염려가 있었지만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위한 한가지 목표로 모인 11명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영혼구원을 위해 팀훈련부터 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멋진 팀이었다
팀원들 서로의 배려,헌신,수고, 사랑, 세상과 다른 예수사랑안에서만이 가능하지안을까?

스리랑카 3팀 남은희

소 가 문

민 병 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스리랑카를 위한 주님의 화을 일까?

정말 사색지 끼지듯 멀었습니다 이들을 온전히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되어 ^{그때} ^{은혜의} ^{까지} 힘든 여정이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오전엔 출근전도. 오후엔 어린이 사역.

전지 창조. 복음팔찌. 화관. 양관. 창양 운동. 인정곡. 기타 등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성한 도구로 사용하며 주심을 감사합니다